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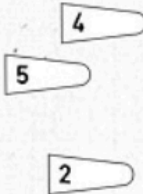
SCRIPT INVENTORS 문자 발명가들

3 스크리닝: 바디랭귀지스



월드스크립트경쟁대회 2018
서울특별시
중 조

CORNER
ART
SPACE



3 씨네코드 선재

3. 스크리닝: 바디 랭귀지스 Body Languages

10월 22일(목) 19시

씨네코드 선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144-2)

큐레이터: 막사 줄러 Maxa Zoller

토크: 아디나 메이 Adeena Mey + 안유리

(상영작)

- 카르틴 레제다리스, 이집트/Egypten, 오스트리아, 1997년, 10분
- 카렌 미르자 & 브레드 퍼틀러, 홀리서지 미어/Hold Your Ground, 영국, 2012년, 7분 57초
- 카타리나 칸줄라, 완벽한 소리/The Perfect Sound, 네덜란드/영국, 2009, 14분 50초
- 안유리, 유동하는 땅, 떠다니는 마음: 태평에서 제주까지 Floating Land Drifting Hearts from Texel to Jeju, 2015, 한국, 7분
- 제인 라커, 케이K, 영국, 1989, 13분
- 워런 내셔브, 격동/Turbulence, 이란, 1998, 9분 7초

소개 / Introduction

〈문자 발명가들 Script Inventors〉 세계문자심포지아 2015_예술 프로젝트 2

"문자 발명가들 Script Inventors"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문자'를 발명한 이들을 초대한다. 이들은 문자를 형이상학적 거대담론이나 문명의 역사로만 수용하는 태도를 넘어, 현실에 대응하며 혹은 현실과 싸워가며 실사구시하게 자신만의 문자를 만들어낸 이들이다. 그들은 문자를 그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왕이나 제사장이 '선포'하거나, 오랜 시간 암묵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습속의 소통 체계라고 보는 전통적 시각에 맞선다. 그들은 현대 사회를 다양한 개인의 미학들이 소통될 수 있는 리즘의 공간으로 이해하며 자신만의 문자를 발명하여 세상에 유포하고 소통한다.

"문자 발명가들"은 문자를 '개념이 소통되고 기록되기 위한 시각체계'로 이해한다. 이 시각체계는 이미지, 사물, 디지털언어 등 눈에 다양한 눈에 보이는 기호들을 포함한다. 한옥 목수, 아티스트, 큐레이터, 일문학 교수, 스님, 미학자, 좌파 컬럼니스트 등 다양한 직업을 통해 그들의 문자가 걷는 통로는 다양하다.

종림스님은 역사적 유물로만 보관되던 고려대장경을 탁본 뜬 후 이를 디지털 파일로 바꾼 이다. 고려대장경은 이제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가 되었다. 장영혜중공업의 웹사이트 인트로 작품인 "하우 투 라이트 떡볶이"는 7개의 언어로 써내려간 떡볶이 레시피다. 이 중 아프리카에서 1,200만명(2011년 기준)이 사용하는 남아프리카의 공용어 줄루어는 구어로만 존재하던 언어를 로마 알파벳에 기초한 형태로 1883년 성경을 번역한 것에서 출발한다. 또한 영문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적은 텍스트는 이미 '모국어' 또는 '순수어'가 사라지고 뒤섞인 지금의 문자생태계를 재발명한다.

"문자 발명가들"이 이루어지는 6개의 공간들은 모두 경복궁을 둘러싼 공간들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궁 '안'과 그렇게 만들어진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아온 궁 '밖'의 정체성은 확장된 함의를 갖는다. 궁 안의 사람과 궁 밖의 사람,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문자를 만든 사람과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 문자 발명가들은 이를 현대 예술에서 생산자와 향유자라는 문화적 계급으로 재해석하며,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과 공간들의 사회적 의미들에 대한 여성주의적, 생태적, 예술적, 급진적 해석을 공유한다.

세부 프로그램 (1-2)

〈1. 대담: 문자의 삶과 죽음〉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 일정: 2015년 10월 18일(일) 14시 / 대담자: 종림스님, 김남시 / 무대 디자인: 김은형

〈2. 렉처 퍼포먼스: 문자발명가들〉 ① 전략적 오해에 관하여 On Misunderstanding as Strategy — 라운드어바웃, 종로구 통의동 83-1, 10월 23일(금) 19시~21시, 퍼포머: 아나 니키토빅 Ana Nikitovic ② 문자발명가들 — 황두진 건축사무소 목련홀, 종로구 통의동 7-31, 10월 24일(토) 14시~18시, 퍼포머: 강수미, 김규향, 박유하, 양효실, 전미래(Feat. 신범순) / 강연주제: 강수미(비감각적 유사성, 말하는 주체, 생각하기의 실현), 김규향(적을 씌운 문자들), 박유하(찢겨진 러브레터-문자/일본/검열), 양효실(발 없는 말이 멀리! 말 없는 여자는 더 멀리), 전미래(살롱 드 69 Salon de 69) ③ 리비에라 관광호텔 — 황두진 건축사무소 목련홀, 10월 25일(일) 11시-17시, 10회(참가신청 10명), 퍼포머: 양아치

세부 프로그램 (3-6)

<3. 스크리닝: 바디 랭귀지스 *Body Languages*> 씨네코드 선재, 종로구 소격동 144-2, 10월 22일(목) 19시 큐레이터: 막사 졸러 *Maxa Zoller* / 토크: 아디나 메이 *Adeena Mey* + 안유리
상영작: 카트린 레제타리츠 이집트 *Agypten* (오스트리아, 1997, 10분) / 카렌 미르자 & 브래드 버틀러 몰러서지 마라 *Hold Your Ground* (영국, 2012, 7분 57초) / 카타리나 쟈츨러 완벽한 소리 *The Perfect Sound* (네덜란드/영국, 2009, 14분 30초) / 안유리 유동하는 땅, 떠다니는 마음 *Floating Land Drifting Heart; from Texel to Jeju* (한국, 2015, 7분) / 제인 파커 케이 *K* (영국, 1989, 13분) / 쉬린 네샤트 격동 *Turbulence* (이란, 1998, 9분 7초)

<4. 전시: 한옥, 우물에 비친 말 그림자> 온그라운드 갤러리, 종로구 창성동 122-11, 10월 15일~23일 (화~일 12시~19시, 월요일 휴관), 참여작가: 조전환+김도형

<5. 퍼포먼스: 불죽, 한글하트풍선> 통의동, 창성동 일대 / 세계문자심포지아 2015 행사 기간 중 참여작가: 강영민(Feat. 한복놀이단)_한글하트풍선, 이슬기_불죽

<6. 웹사이트 인트로: 하우 투 라이트 떡볶이> 세계문자심포지아 2015 웹사이트 / 참여작가: 장영혜중공업 http://www.yhchang.com/HOW_TO_WRITE_TUCKBOKEY.html